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2호(2006)

교양어와 준교양어의 음운론적 정의*

이 강 국

<Abstract>

La definición fonológica del cultismo y semicultismo

Según la clasificación de Lapesa (1981, 109), (angĕlu>) ángel, (virgĭne>) virgen, (physĭcu>) fésigo, (toxĭcu>) tósigo y (canonĭcu>) canónigo son semicultismos, porque está conservada la vocal postónica en cada forma, aunque se ha caído la vocal final (-u en angĕlu) o se ha sonorizado la oclusiva sorda intervocálica (-c->-g-). Pero clasifica (voluntate>) voluntad como cultismo a pesar de la sonorización de la -t-, por el motivo de que 'guarda sin más alteraciones que las precisas para acomodarla a la estructura fonética o gramatical romance'. Por otro lado, Menéndez Pidal [1940, 74] clasifica (fidelitate>) fidelidad también como cultismo, puesto que está conservada la vocal protónica. Sin embargo, voluntad y fidelidad deben ser clasificados como semicultismos al comparar con la evolución del semicultismo canónigo, porque en todas estas formas ha ocurrido en común la sonorización de la oclusiva sorda intervocálica. Como otro ejemplo, Menéndez Pidal clasifica (cualitate>) cualidad y (quaestione>) cuestión como cultismos por el motivo de ser conservada la -u- latina (128). Pero estas dos formas no deben ser clasificadas en la misma categoría, porque es muy clara que cualidad derivado de qualitate, aunque es verdad que conserva más elementos cultos que calidad, ha sufrido la sonorización de la oclusiva sorda intervocálica al comparar con cuestión. De esta manera, puesto que no es tan clara la definición fonológica para juzgar si es culta o semiculta

* 이 논문은 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una forma en cuestión, en este trabajo proponemos una pauta sistemática para aclarar la identificación histórica de los vocabularios españoles a base del análisis de varios tipos de cultismos y semicultismos.

[Key Words: Fonología histórica del español / Cultismo / Semicultismo / Voces Populares]
[주제어: 스페인어역사음운론 / 교양어 / 준교양어 / 대중어]

Ⅰ. 문제 제기

스페인어의 어휘 체계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어휘의 역사적 정체성이다. 즉, Varela Ortega(2005, 7)가 말하는 스페인어의 어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 즉 교양어, 준교양어, 대중어를 판별하는 문제로써, 이는 상황과 문맥에 따른 정확하고도 적절한 어휘 선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해당 언어를 연구는 데는 공시적인 관점에서의 어형성 규칙이나 구조 분석 못지않게 어휘의 역사적 발전 단계 및 그 체계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한 항목이다. 어휘의 역사가 곧 언어의 역사이기 때문이며, 그 역사를 아는 것은 곧 해당 언어에 대한 내적 지식을 심화시키는 지름길이고 상황과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 선정이야 말로 한 차원 더 높은 언어 구사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 교육에서 정확한 문법 사용과 능숙한 구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항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교양어란 “라틴어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겪지 않고 로망스어로 이행된 형태들”이며, 대중어란, 이와는 반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입에서 변화를 겪은 형태”를 가리킨다.[1] 교

1) Menéndez Pidal(1940, 9 y ss) 참조. 그러나 라틴어와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모두 교양어는 아니다. 예를 들어 casa와 caballo의 경우, 이들은 라틴속어에서 유래된 어휘들이므로 교양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고어에서는 각각 domus와 equus이고, 여기서 유래된 것이 [이] duomo와 yegua이다. 교양어란 omnipotente>omnipotente, dignu> digno 등과 같이 라틴 고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형태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이다.

양어들은 대부분 로망스어 정착 단계에서 서적을 통해 라틴어로부터 차용된 것들이거나, 계속 사용되던 것들이라 해도 특정 이유로 변화가 정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그 중간 단계에 속하는 어휘들이 있는데, 이를 준교양어라고 부른다. 즉, 이들은 라틴어로부터 변화를 겪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변화가 중간에서 정지된 것들"로써, 변화가 멈춘 이유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상의 정의들이 대부분의 스페인어 역사음운론 서적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의로써, 대체로 문화사적인 해석에 치중하고 있다. 즉, 가장 대표적인 준교양어로 꼽히는 águila의 경우 이는 "로마 군단의 상징이므로", Pedro의 경우에는 "성인의 이름이므로", iglesia는 "교회 용어이므로" 변화가 중간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설명되고 있을 뿐이다.[2)]

그러나, 교양어와 준교양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화사적인 해석과는 별도로, 좀 더 구체적인 음운론적인 정의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 본 일반적인 정의와 같이 대부분의 교양어/준교양어 판별은 '형태의 변화 정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원과 비교해서 변하지 않았으면 교양어, 완전히 변했으면 대중어, 변화가 도중에 멈춘 형태는 준교양어 정도로만 정의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음운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치 만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angĕlu>ángel, virgĭne>virgen, physĭcu>fésigo, toxĭcu>tósigo, canonĭcu>canónigo 등으로써, Lapesa(1981, 109)의 분류에 따르면 이 어휘들은 준교양어이다. 그 이유는 각각 로망스어의 음 체계에 맞게 어말 모음의 탈락 (angĕlu의 -u), 어중 비강세 모음의 변화 (virgĭne에서 ĭ>e), 두 모음 사이에 낀 무성폐쇄음의 유성음화 (-c->-g-) 등을 겪었지만, 모든 예들에서 공통적으로 어중 비강세 모음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양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voluntate>voluntad을 '로망스어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 이외의 다른 변화는 겪지 않고 라틴 어원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양어로 분류하고 있으며, Menéndez Pidal(1940, 74)는 비슷한 유형의 변화인 fidelitate>fidelidad을 어중 비강세 모음이 보존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양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voluntate>voluntad은 위의 준교

2) 이와 같은 설명을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Alatorre(1989, 제3장)을 볼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교양어와 준교양어 전반에 관해서는 Lapesa(1981, 107-110), Menéndez Pidal(1940, 9-63), Bustos Tovar(1974)와 Wright(197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양어 canonicu>canónigo 변화와 동일하게 두 모음 사이에 낀 무성폐쇄음이 유성음화를 겪은 예이므로 당연히 같은 준교양어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며, fidelidad은 유성음화를 두 번 겪은 예이므로 더 더욱 준교양어로 분류되어야 마땅한 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들이 교양어로 분류된 이유는 아마도 로망스어에는 매우 낯선 어중의 비강세 모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중의 비강세 모음 보존 여부만을 놓고 보면 위의 준교양어 모두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예로 Menéndez Pidal은 cualidad과 cuestión을 라틴 u를 보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양어로 함께 분류하고 있다(128). 그러나 qualitate에서 유래된 cualidad은, calidad과 비교해 볼 때는 분명 교양어의 요소를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quaestione>cuestión 변화와 비교해 보면 두 모음 사이에 낀 무성폐쇄음의 유성음화 여부가 명확히 드러난다. 게다가, 이 quaestione>cuestión 변화에서는 어두 자음 qu->c-의 형태 변화와 모음 ae>e의 변화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이들 역시 형태가 변화되었는데, 왜 이 형태를 교양어로 분류하는 것일까? 이처럼, 동일한 교양어로 분류되는 형태들 사이에서도 음운론적으로 경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본고에서는 교양어와 준교양어 판정 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음운론적인 관점에서의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명백한 교양어의 경우,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원과 비교해 봤을 때 형태가 변하지 않은 어휘들을 교양어라 일컫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변화된 형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olonĭa>colonia, columna>columna 등은 외형상 아무런 변화도 겪지 않은 형태들인 반면에, compendĭu>compendio, imperĭu>imperio, extremu>extremo; virgine>virgen, voluntate>voluntad 등은 어말 모음의 변화 (-u>-o)나 탈락 (-e>∅)이라는 형태상의 변화를 겪은 어휘들이다.[3] 그런데 왜 이 변화들은 교양어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

3) 스페인어의 어말에서 허용 가능한 모음은 a, e, o 뿐이다. 그러나 metrópoli, Corpuscristi, palmacristi; crisis, análisis síntesis 등과 같이 -i로 끝나는 형태들과 espíritu, tribu, ímpetu; ángelus, Nicomedus, virus, Venus 등과 같이 -u로 끝나는 형태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그리스어 기원으로써 교양어로 분류된다 (Menéndez Pidal 1940, 79 y 81). 또한 isrealí, pakistaní, kuwaití; bambú 등과 같은 예외들도 있는데, 이들은 아랍어 등과 같은 외래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류된다(Rafael Lapesa (1981, 147).

또한, 형태상의 변화 여부 관점에서 볼 때 위의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예들 들어, audacĭa>audacia, gente>gente, vulpecŭla>vulpécula 등은 '형태는 그대로 인데 발음만 변한' 예들이다. 이런 형태들은 교양어인가, 준교양어인가? 반대로, affectu>afecto, flamma>flama, illustre>ilustre, collegĭu>colegio, professore>profesor 등은 복자음이 단자음화 된 예로써 '형태는 변했지만 발음은 변하지 않은 예들'이다. 이와 더불어 위의 quaestione>cuestión이 교양어라면 Aemilianu>Emiliano, aedificĭu>edificio 등도 교양어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형태상으로는 분명히 모음군 ae가 e로 변화된 예들인데 왜 준교양어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음운론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교양어/준교양어 판정 기준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교양어 판정의 음운론적 경계

앞에서 정의한 대로, 교양어란 대체로 어원에서부터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고 스페인어로 유입된 어휘를 일컫는다. 그러나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면 변화를 겪은 형태들도 많다는 사실이다. 그 변화도 최근 들어서의 정자법상의 조정이 아닌, 연대기적으로도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교양어 예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어떤 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통해 추출된 변화의 공통점을 분석함으로써 왜 이러한 변화들은 교양어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해답을 찾아 볼 것이다. 변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어원과 동일한 형태들

academĭa>academia
auricŭla>aurícula[4)]
basilĭca>basílica

4) 라틴 어두의 au가 단모음화 되고 -cul- 어군이 -j-로 변한 것이 대중어 oreja이다.

gloriă>gloria
historiă>historia

2) 어말 모음 -e가 탈락한 형태들

capitale>capital[5)]
flore>flor
fluviale>fluvial
interrogare>interrogar
legale>legal[6)]
mansione>mansión[7)]
oblicuare>oblicuar
obligare>obligar
plorare>plorar[8)]

3) 어말 모음 -u가 -o로 변한 형태들

calĭdu>cálido[9)]
coagŭlu>coágulo[10)]
directu>directo[11)]

---

5) 두 모음 사이에 낀 무성폐쇄음 p와 t가 유성음화 되고 (>*cabidale) 어중의 비강세 모음 ĭ가 탈락한 후 (>*cabdale), 2차 자음군 -bd-의 b가 모음화 된 형태가 현재의 대중어 caudal이다.
6) 두 모음 사이에 낀 라틴 유성폐쇄음 -g-가 탈락된 형태가 대중어 leal이다.
7) 네 번째 yod인 si가 정상적으로 앞 모음을 닫히게 하고 탈락한 형태가 대중어 mesón이다.
8) 라틴 어두 pl-가 정상적으로 ll-로 변한 것이 대중어 llorar이다. 아래의 plenu>pleno 변화 또한 동일하게 설명된다.
9) 어중의 비강세 모음 ĭ가 탈락한 형태가 대중어 caldo이다.
10) 정상적으로 어중 비강세 모음이 탈락하고 어두 모음이 변한 것이 대중어 cuajo이다.
11) 어두 비강세 모음이 정상적으로 e로 변하고 네 번째 yod인 -ct-가 정상적으로 -ch-로 변한 것이 대중어 derecho이다. 강세 모음이 이중모음화 되지 않은 것은 yod에 의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fragmentu>fragmento
frenu>freno
globu>globo
intĕgru>íntegro[12)]
ministerĭu>ministerio[13)]
monasterĭu>monasterio[14)]
nocturnu>nocturno
plenu>pleno
profundu>profundo

이 예들의 변화 사실을 살펴보면 어말 모음 -e의 탈락과 어말 모음 -u>-o 변화, 즉 모두 공통적으로 어말 모음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변화만이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문화사적으로도 음운론적으로도 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으므로, 변화 연대기에서 해답을 찾아보았다. 우리가 라틴어에서 로망스어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로 꼽을 수 있는 변화들, 즉 '강세 폐모음의 이중모음화, 두 모음 사이에 낀 무성폐쇄음의 유성음화, 어중 비강세 모음의 탈락, 두 모음 사이에 낀 마찰음의 탈락' 등은 모두 라틴 속어 단계나 최소한 로망스어 전이 단계에서 발생한 변화들이다. 그러나, Menéndez Pidal(1940, 171 y ss)의 연대기 분류에 따르면, 위 라틴어말 모음들의 변화는 11세기 이후, 즉 이미 라틴어가 로망스어로 변화 정착된 이후에 일어난 변화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변화들은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교양어라고 해서 발전 과정 내낸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로망스어 이전 단계에서'

12) 이와 같은 'muta cum liquida' 형태에서는 강세의 위치가 라틴어에서부터 혼동되었다. 강세가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놓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변화된 것이 대중어 entero이다.

13) 비강세 모음들이 정상적으로 e로 변하고 네 번째 yod인 -ri-가 앞 모음에 작용한 후 탈락한 대중어가 menester이며, 대중들의 입에서 더 변한 것이 mester이다 (Alatorre 1989, 58-59).

14) 정상적으로 변했다면 위의 ministeriu>menester, mester처럼 *monaster>*moster가 되었을 것이다. 이 형태들은 현재 지명 Almonaster, Almonacid 등에서 관찰된다 (이강국 2001, 80).

라는 제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11세기 이후 로망스어가 독립된 개별 언어로 정착된 이후에는 독자적인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므로, 그 정착 전 시기까지의 변화 사항들만이 라틴어와 연관지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로망스어 형성 시기까지만이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의 기준 시점에 포함된다는 뜻으로써, 그 이후 로망스어 단계에서의 변화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판정 기준 시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각 어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변화의 연대기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양어라고 해서 모두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로망스어 정착 이전 단계에서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로 좀 더 세분화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교양어/준교양어 판별 여부가 불투명한 형태들의 음운론적 경계

먼저, '형태는 어원과 동일한데 발음만 변한 경우'가 있다. 이에 속하는 어휘들은 교양어인가 준교양어인가?

가장 먼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k]>[θ] 변화이다.

audacĭa>audacia
conciliŭ>concilio
dulce>dulce

첫 번째 예인 audacia의 경우, 정상적인 변화였다면 어두 모음은 auricŭla>oreja에서처럼 단모음화되고 -ci-는 malicĭa>maleza에서처럼 -z-로 변해 *odaza가 되었을 것이다. conciliŭ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변화에서는 cilĭa>ceja에서처럼 강세 모음 i는 e로 변하고 -li-는 -j-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변한 것이 대중어인 concejo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 yod에 해당되는 -ci- 어군을 갖고 있으며, 구개음화>치간음화 과정을 거쳐 발음은 [θ]로 변한 예들이다. 그러나 철자는 z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ci-를 간직하고 있다. dulce

의 경우에는, 형태상으로만 보아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라틴 무성폐쇄음 c [k]가 뒤에 오는 경구개모음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화되었다가 [θ]로 치간음화되었다. 그러나 라틴 자음군 -lc-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l가 다른 무성폐쇄음 앞에서처럼 모음화 되었다면 dulce>duce>duz가 되었을 것이다[15]. 이 밖에도 placere>placer, preces>preces 등도 발음은 [k]>[θ]로 변했지만, 철자 상으로는 변화를 겪지 않은 예들이다.

[g]>[x] 변화도 이와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변화이다.

cogitatīvu>cogitativo
evangelĭu>evangelio
frigĭdu>frígido
genĕru>género
gente>gente
tragedĭa>tragedia

이 또한 위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발음만 변했고 (이 경우에는 [g]>[x])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는 형태들이다. 대표적으로 frigĭdu>frígido 변화를 살펴보면, 어중의 비강세 모음인 ĭ는 탈락했어야 했지만 보존되어 있으므로 어말 모음의 변화 (-u>-o)를 제외하면 형태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이다.[16] 변화된 것은 단지 라틴 자음 g의 발음뿐이다. 이와 동일한 경구개모음 앞 환경에 놓인 것이 genĕru>género 변화이다. 이 또한 어중 비강세 모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형태로써 교양어로 분류되어야 마땅한 예이다[17]. 일단 위에서 형태상의 변화를 겪지 않은 어휘들은 교양어로 본다고 했으므로 이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분류를 해야 할 것이다.

---

15) talpa>*taupa>topa>(후에 남성단수로 일반화 되어) topo, saltu>*sautu>soto 등에서처럼 l는 무성폐쇄음 앞에서 모음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위의 duz는 실제로 스페인어 고어에서 발견되는 형태이다(Menéndez Pidal 1940, 140).

16) 정상적으로 어중의 비강세 모음이 탈락된 것이 대중어 frío이다.

17) 어중의 비강에 모음이 탈락했다면 honorare>honrar에서처럼 r의 발음이 강화되어 *genro가 되었거나, ingenerare>ingenrare>engendrar에서처럼 d가 삽입되어 *gendro가 되었거나, Veneris>venris>viernes에서처럼 자위전환 되어 *gerno가 되었을 것이다(Menéndez Pidal 1940, 161).

연대기 상으로도, 위 두 발음의 변화는 17세기 이후, 즉 황금세기 이후에 해당되므로 라틴 어휘들이 어떤 발음으로 읽혔든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어말 모음의 변화를 연대기에 따라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원과 현재형만을 놓고 단순 비교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종 변화가 황금세기에 가서야 완료되었다고 해서 중간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황금세기에 치간음화와 연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의 음성학적 변화가 당연히 일어났었기 때문이다[18]. 이런 중간 단계의 발음 변화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예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단적인 예가 casa일 것이다. 라틴 어원도 물론 동일한 형태인 casa이다. 그렇다고 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형태가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는 무성음인 두 모음 사이의 -s-가, 라틴어에서 무성음이었든 유성음이었든, 중세 때는 유성음이었기 때문이다.[19] 그러나 이 어휘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다룰 때는, 이 어휘가 형태 변화를 겪지는 않았지만 속어 기원이므로 대중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뿐이다. 따라서 위의 예들도 마찬가지로 형태상으로 변화가 없고 고어 기원이라면 교양어로 분류해야 마땅한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예는 [u]>[b] 변화이다.

clave>clave[20]
valvŭla>válvula
voluntate>voluntad
vulpecŭla>vulpécula[21]

---

18) 예를 들어, bracchĭu>brazo 변화에서 치간음화 이전에는 치음화 과정이 있었다. 중세 철자 상으로는 braço로 표기되었고 발음은 유성 파열 치음 [ʣ]였다. facĕre>hacer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세 때는 철자 상으로는 hazer로 표기되었고 발음은 유성 파열 치음인 [ʣ]였다.

19) 중세 때까지는 이 치찰음의 유/무성을 구분하기 위해 철자 상으로 유성음 -s-(casa>casa)와 무성음 -ss- (urso>osso>oso)로 표기를 달리했다. 후에 황금세기 들어 무성음으로 통합되면서 철자상의 통합도 이루어진 것이다.

20) 이 형태가 교양어로 분류되는 이유는 -v-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두 자음군 cl-의 보존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ll-로 변한 것이 대중어 llave이다.

이 라틴 v는 본래 모음이었으나 다른 모음 앞에서는 자음성을 띄게 되었다[22]. 이것이 순치음 과정을 거쳐 이베리아 반도에서 양순음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들어서의 일이며, Rafael Lapesa(1981, 39, 주27)에 의하면 이베리아 반도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16세기 후반 이후이다. 따라서 발음상의 변화 연대기만을 보면 현재와 같은 양순음 발음은 분명 로망스어 단계에서의 변화이다. 그러나 그 중간의 순치음 단계는 이미 로망스어 전이 단계에 해당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변화는 훨씬 더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발음의 변화는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에서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위의 casa 경우에서처럼 사소한 발음의 변화조차 겪지 않은 어휘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모든 음들이 라틴어 단계에서와 모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일관성 있게 형태상의 변화 여부만을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voluntate의 v- 변화는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형태는 변했지만 발음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자음이 단자음화된 경우이다.

affectu>afecto[23]
collegĭu>colegio
illustre>ilustre
flamma>flama[24]

---

21) 이 형태 또한 교양어로 분류되는 이유는 어두음 v- 때문이라기보다는 라틴 어군 -cul-의 존속 때문이다. ocŭlu>ojo에서처럼 이 어군이 정상적으로 변한 것이 vulpeja로써 현재의 대중어 형태이다.

22) 본래 라틴 고어에서는 연구개 모음 [u]를 나타내는 표기는 v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다른 모음 앞에서 쓰여 자음성을 갖는 것과 순수 모음을 구분하기 위해 u라는 표기를 고안해 낸 것이다. 모음 i도 마찬가지로 음 환경에 따라서는 모음성과 자음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insŭla의 어두 i는 명백한 모음이지만, iocu에서는 자음성을 띄게 된다. 후에 이 두 음을 구분하기 위해 자음성을 갖는 음을 j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이강국 2001, 48).

23) 자음군 -ct- 또한 스페인어에서는 낯선 어군이다. 따라서 황금세기 때까지만 해도 (efecto 대신의) efeto, (concepto 대신의) conceto등이 쓰였었으며, respecto와 함께 쓰이던 respeto는 별도로 어휘화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Menéndez Pidal 1940, 11).

24) 어두에 라틴 자음군 fl-를 갖고 있는 명백한 교양어이다. ll-로 정상적으로 변한 것이

professore>profesor

앞의 부류의 예들이 형태상으로는 어원과 동일하므로 교양어로 분류되어야 한다면, 이 예들은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형태상으로는 분명히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준교양어로 분류해야 할까, 아니면 단지 복자음이 단순화된 것이므로 교양어로 분류해야 하는가?

변화 연대기 상으로, 이러한 복자음의 단순화 (gutta>gota)나 동화로 인해 야기된 자음군의 단순화 (sĕpte>sette>siete)는 모두 비교적 후기에 속한다. Menéndez Pidal이 분류한 라틴어 단계에서의 8개 변화 중 6번째에 속하기 때문이다[25]. 이는 두 모음 사이에 낀 유성 폐쇄음과 마찰음의 탈락 (sarta(g)ĭne>sartén, proba(v)i>probé)이나 두 모음사이에 낀 무성폐쇄음의 유성음화 (lŭpu>lobo, vita>vida, secūru>seguro) 보다도 더 뒤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 변화들의 연대기에서 분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는 음성학적인 근거를 찾아보아야 한다. professore>profesor와 mensa>mesa 변화를 비교해보자. 최종 형태는 모두 -s-를 갖고 있지만 어원은 상이하다. professore>profesor의 경우에는 -ss-라는 동일 조음점의 복자음이 단순화된 것이고 mensa>mesa의 -ns->s는 중간에 -ss-로 동화되었다가, 즉 n의 조음 방법과 위치 및 형태가 바뀌었다가 단자음화된 것이다. 결국 이는 형태가 변한 예에 속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sĕpte>siete를 살펴보자. -pt- 또한 중간 단계에서는 -tt-라는 동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앞의 요소인 p는 t로 조음점이 이동함과 동시에 형태 변화도 겪었다. somnu>sueño는 변화의 정도가 더 심하고 분명하다. 어느 누구도 이를 summu>sumo에서의 복자음 변화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음성학적으로는 이 변화들이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복자음의 단순화 (tt>t)는 조음 방법이나 위치상의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마치 장모음이 단모음화 (ē=e+e>e) 되는 듯한 내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음군의 동화 (pt>tt>t)는 앞 자음의 조음점과 위치가 변한 것이므로 명백한 외적 변화

대중어 llama이다.

25) (Menéndez Pidal 1940, 172) 참조.

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음점이 상이한 복자음의 단음화는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조음점이 동일한 복자음의 단자음화는 외형상 형태 변화는 일어났지만 복자음을 구성하고 있던 두 요소간의 조음 위치나 방법의 변화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음가의 변화'가 없으므로 앞의 두 부류와 마찬가지로 교양어로 분류해야 한다. 이는 곧 라틴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했다고 해서 형태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같은 형태 변화와는 무관한 음가의 보존 여부 기준은 아래의 복모음의[26] 변화를 판정하는 데도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만약 위 동형 복자음의 단자음화만을 형태 변화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아래의 변화는 분명 형태 변화에 속하므로 준교양어로 분류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장모음의 단음화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형태들이다.

Aemilianu>Emiliano
aedificĭu>edificio
aenigma>enigma
Aeneas>Eneas

예를 들어, Emiliano를 준교양어로 본다면 그 이유는, 공히 조음점과 위치의 변화로 인해 형태가 변했다는 것과 어중의 비강세 모음인 i가 보존되어 있고 -li-가 -j-나 -ll-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며,[27] edificio의 경

26) 이 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지 않고 복모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라틴고어에서는 두 모음이 독립적으로 모두 발음되었기 때문이다(Bassols de Climent 1983, 69). 이중모음이란 예를 들어 [ay]나 [ya]처럼 '완전 모음+반모음' 또는 '반자음+완전모음'의 결합체를 일컫는 것인데, 라틴 고어에서 ae는 이러한 성격의 이중모음이 아니었다. 게다가 라틴어에서는 a+e 모음군과 ae라는 두 모음 연속체가 동일 문맥에서 출현함으로써 대립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정상적으로 변했다면 praecōne>pregón [대], saeculare>seglar [준]에서처럼 e가 되었거나, caemĕntu>cimiento, semĕnte>simiente, fervĕnte>hirviente에서처럼 yod에 의해 닫혀 i로 변했다.

27) cusculĭu>coscojo에서는 -li-가 -j-로 변한 반면에, 동일 어원(Aemilianus)에서 유래된 Millán에서는 -ll-로 변했다.

우에도 또한 어중의 비강세 모음 i가 남아 있고 -ci-가 -z-로 변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28] 반면에 교양어로 본다면, faena, Faetón 등과 같이 현재 ae 어군을 갖고 있는 형태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quaestione>cuestión이 어두 자음과 모음군이 모두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어로 분류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곧 이 모음군의 변화가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의 자음들의 경우에서처럼, 형태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형태들도 결코 교양어로 분류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생긴다. 먼저, 어두 자음을 보면 분명 형태는 변했지만 음가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라틴 qu-나 스페인어 cu-나 동일하게 [kw] 음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9]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음의 변화도 좀 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라틴어에서는 ae와 동일 계열의 모음으로 ē와 ĕ가 더 있었으며, ae는 이미 라틴 초기부터 ē로 단음화되었다.[30] 차이는 각각 본래 ē는 닫힌 모음이었는데 반해, ae로부터 비롯된 ē는 열린 모음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서는 열림 정도로만 구분되었고, ĕ와는 길이에서만 구분되었을 뿐 열림 정도는 동일한 모음이었다. 따라서 철자가 ae로 구분된 것뿐이다. 모음의 길이가 비변별화 된 후에는 열림 정도에서조차 구분이 애매모호해졌으므로 음가는 동일하게 /e/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음에서는 음가의 변화 - 또는 발음의 변화- 가 곧 형태의 변화로 이어지지만 모음의 경우에는 자음과는 달리 열림 정도의 구분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형태 변화라는 관점에서도 ē/ĕ간의 길이 정도나 ę/ę̆간의 열림 정도 통합을 변화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위 모음들의 변화에서도 단지 철자상의 변화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ae>e 변화는 음가 상으로는 [e]로 보존되어 있는

28) 그러나 aedīle>edil의 경우는 형태상으로는 모든 음들이 음성학적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변화된 대중어임에 틀림없으나, 교양어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음성학적인 데 있지 않고, 이 어휘의 사용 환경과 유입 연대기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특정 어휘의 교양어/준교양어 판정 여부는 어원에서의 사용 환경, 유입 연대기, 경로, 음의 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작업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음성/음운론적인 관점에서의 판단 기준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29) 학자들에 따라서는 라틴 qu-를 /k^{w}/로 분류하기도 한다.

30) 이 모음의 변화는(Väänänen 1988, 83-84) 참조.

예에 해당되므로 교양어적 요소로 간주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변화 연대기에서도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Bassols de Climent (1983, 69)에 따르면, ae가 대중들의 입에서 e로 단모음화된 것은 이미 기원전 2세기 초반으로써, 이미 비문에는 ae 대신 속어 e로 쓰인 흔적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며, 가장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예가 Aemilio 대신에 쓰인 Emilio이다. 이는 이 모음의 음가가 /e/ (ē와 ĕ)와 동일 범주로써 혼용되었다는 증거이다. 이는 곧 위 복자음의 단자음화 경우처럼 조음점이나 방법의 변화 없이 열림 정도와 길이에서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교양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변화가 또 다른 라틴 복모음 oe의 변화이다. 이 모음도 대체로 ē와 ĭ (>ę)로 변해 정상적인 경우라면 foedu>feo, poenitentĭa>penitencia처럼 e로 변했기 때문인데, 이 두 형태가 준교양어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모음의 변화 여부 때문이 아니라, 각각 어두 f-의 보존과 어중 비강세 모음의 보존 때문이다. oe의 음가 또한 닫힌 장모음 /ē/였으므로 로망스어에서의 e는 음가가 보존된 것이다. 연대기적으로도 oe>e의 예로는 이미 제정시대의 비문에서 Phoebus 대신에 Pebus로 쓰인 예가 발견되므로 (Bassols de Climent (p.74)) 로망스어까지 지속되었던 또 다른 복모음 au의 변화와는 구분된다.

현재 스페인어에서 위의 모음군 ae와 oe를 보유하고 있는 어휘들과 비교해 보자. ae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위에서 예로 든 faena와 faetón, 또는 paella 등일 것이다. 이 형태들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 복모음 ae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DRAE(1992)에 따르면[31] faena의 경우에는 까딸루냐어 고어 faena로부터 유래된 것이며,[32] faetón의 경우에는 불어 phaéthon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33] paella의 경우 역시 발렌시아 방언 paella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순수하게 라틴어로부터 유리된 것은 아니다. 라틴어에서도 복모음 ae와 두 모음 a+ē는 구분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aēre>aire 변화이다. 라틴어에서부터 독립된 두 모음인 경우에는 당연히 e로

31) Real Academia Española(1992)의 사전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바에 따라 줄여서 부른 것이다.

32) 까딸루냐어 또한 라틴어로부터 유래된 언어이므로 이 형태도 어원은 라틴어일 수 있다. 비록 라틴어의 해당 형태 faena로 부터 유래된 것이라 해도, 까스띠야어 내부에서 직접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33) 이 어휘의 기원은 그리스어이며, 모음군은 복모음이 아닌 각각 독립된 a+ē 어군이다.

통합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스페인어에서 이 oe 어군을 갖고 있는 예들로는 교양어 poēma>poema, poēta>poeta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예들의 모음군은 복모음 oe가 아니라 독립된 두 개의 모음 o+ē이다. 따라서 두 모음군 모두 현 스페인어에서 e로 변했다고 해서 ae나 oe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중어적인 요소로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라틴 복모음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형태는 변화됐을지라도 음가 보존이 명백하므로, qu-->cu- 변화가 대중어적 요소가 아니듯이, 교양어의 잔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음점과 위치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형태의 변화라는 것이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자음의 변화를 다룰 때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복모음 ae의 앞 요소인 a는 분명 조음 위치가 이동했고 닫힘 정도가 달라져 e로 동화되기에 이른 것이므로 '변화'로 간주해 위의 예들을 준교양어로 분류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형태상의 변화만이 아닌 음가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복모음의 변화는 이형 복자음 pt>tt>t, ns>ss>s 변화가 아닌 동형 복자음 (ff>f, mm>m, ll>l 등)의 단자음화와는 동일한 성격의 변화로 봐야 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음가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변화가 같은 성격의 변화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형태 변화를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의 근거로 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가의 보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이상과 같이, 우리는 교양어로 분류되는 voluntate>voluntad, fidelitate>fidelidad과 준교양어로 분류되는 toxicu>tósigo, canonicu>canónigo 비교를 통해 음운론적인 경계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교양어와 준교양어의 음운론적 위상과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몇 가지 질문을 상정했으며, 이에 가능한 해답을 찾는데 필요한 해당 자료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명백한 교양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서, '교양어라고 해서 모두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앞에서 교양어들 중

에도 어말 모음의 변화를 겪은 형태들이 다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교양어들 중에는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들도 많은 반면에 어말 모음의 변화를 겪은 형태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어말 모음의 변화를 교양어/준교양어, 대중어 여부 판정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이 변화가 연대기적으로 이미 로망스어 단계로 진입한 11세기 이후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이다. 각 형태의 음운론적 정체성 판정을 위해서는 변화의 종류뿐만 아니라 연대기에도 유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형태는 어원과 동일한데 발음만 변한 경우는 교양어인가, 준교양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k]>[θ]와 [g]>[x] 등의 발음 변화는 로망스어에서도 매우 후기에 일어난 변화이다. 이러한 발음은 황금세기에 들어서야 나타나므로, 앞의 어말 모음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미 로망스어 정착 단계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그 중간 단계의 변화는 음 환경에 따라서는 이미 라틴 속어에서부터 일어난 변화도 있으나, 발음상의 변화만을 고려한다면 교양어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어휘들도 다 해당되므로 발음상의 변화는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ss>s, mm>m, ll>l 등과 같은 라틴 복자음의 단자음화는 이미 라틴 속어 단계에서 일어난 변화이지만 조음점이나 조음위치 상의 변화가 아니므로 교양어/준교양어 판정 여부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라틴 복모음 ae>e 단모음화 또한 다른 라틴 복모음 au>o, oe>e 변화와 같이 형태상으로는 축약과 변화가 명백하므로 Aemilianu>Emiliano나 aedificĭu>edificio 등을 준교양어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Menéndez Pidal이 분류한 바에 따라 quaestione>cuestión을 교양어로 보았으므로, 이에 따라 ae>e 변화는 '음가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교양어적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Aemilianu>Emiliano나 aedificĭu>edificio 등은 교양어로 분류되어야 하며, voluntate>voluntad의 경우에는 어두 모음의 자음화 변화는 교양어 여부 판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두 모음사이에 낀 -t-의 유성음화는 분명 정상적인 음운 변화이므로 이 어휘를 교양어로 볼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fidelitate>fidelidad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두의 f-보존과 어중의 비강세 모음 보존은 분명 교양어적인 요소이지만 두 모음 사이에 낀 두 -t-의 유성음화는 정상적인 음운 변화이므로 교양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교양어란 앞에서 말한 대로, '로망스어 단계에서 일어난 변화',

즉 어말 모음의 변화를 제외한 타 형태가 어원과 동일한 어휘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연대기 상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발음과 형태 변화 문제만을 놓고 보면, '발음이 변했어도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교양어로 판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른다면 라틴 복자음의 단자음화 (ff>f, mm>m, ll>l)는 조음점이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외형상 형태가 변한 예에 속하므로 준교양어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형태상의 변화 여부만으로는 판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가의 보존 여부'를 교려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틴 복자음 ss, mm, ll 등의 단자음화뿐만 아니라 복모음 ae의 단모음화 또한 교양어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형태 변화가 교양어/준교양어 판정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태가 변했다 해도 음가가 보존되어 있다면 교양어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clave>) clave는 발음은 변했지만 형태가 보존되어 교양어에 속하는 것이며, (aedificĭu>) edificio도 형태는 변했지만 음가가 보존되어 있으므로 교양어로 분류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voluntate>) voluntad, (fidelitate>) fidelidad은 준교양어에 속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는 그대로 인데 발음만 변한 audacia, gente 등도 모두 교양어에 속하며, 복자음이 단자음화된 flama, ilustre, colegio 등도 역시 교양어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머지 변화들, 즉 ns>ss>s, pt>tt>t 등의 변화들은 조음점과 위치의 변화로 인해 형태가 변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음가 또한 변했으므로 대중어나 준교양어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처럼 복잡한 변화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교양어/준교양어, 또는 대중어 판별 지식이야말로 해당 언어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대한 내적 지식을 심화시키고 상황과 문맥에 따라 적절한 어휘를 선정해 차원 높은 언어 구사력을 기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므로, 언어 교육에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러두기

[고] = 스페인 고어
[이] = 이태리어
[포] = 포르투갈어

[아] = 스페인 아스뚜리아스 방언
[교] = 교양어
[대] = 대중어
[준] = 준교양어

참고문헌

이강국(2001), 『스페인언어문화사』, 송산.

Alatorre, Antonio(1989), *Los 1,001 años de la lengua española*, Ciudad de México: Tezontle.

Bassols de Climent, Mariano(1983), *Fonética latina*, Madrid: C.S.I.C.

Bustos Gisbert, Eugenio, *et. al.*(1993), *Práctica y teoría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Síntesis.

Bustos Tovar, José Jesús(1974), *Contribución al estudio del cultismo léxico medieval*, Madrid: RAE.

Cano Aguilar, Rafael(1988), *El español a través de los tiempos*, Madrid: Arco/Libros.

Diccionario ilustrado latino-español/español-latino(1964), Barcelona: Biblioghraf.

Real Academia Española(1992),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Elcock, W.D.(1960), *The Romance Languages*, London: Faber & Faber.

Malkiel, Yakov(1996), *Etimología*, Madrid: Cátedra.

García de Diego, Vicente(1981), *Gramática histórica española*, Madrid: Grdos.

Grandgent, C.H.(1991), *Introducción al latín vulgar*, Madrid: C.S.I.C.

Herman, József(1997), *El latín vulgar*, Barcelona: Ariel.

Lang, M.F.(1990), *Spanish Word Formation*, London: Routledge.

Lapesa, Rafael(1981),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Gredos.

Lathrop, T.A.(1989), *Curso de gramática histórica española*, Barcelona:

Ariel.
Lleal, Coloma(1990), *La formación de las lenguas peninsulares*, Barcelona: Barcanova.
Lloyd, Paul M.(1987), *Del latín al español*, Madrid: Gredos.
Menéndez Pidal, Ramón(1940), *Manual de gramática histórica española*, 21ª ed., Madrid: Espasa-Calpe, 1992.
_____(1950), *Orígenes del español*. 7ª ed., Madrid: Espasa-Calpe, 1972.
Penny, Ralph(1991), *Gramática histórica del español*, Barcelona: Ariel.
Pensado Ruiz, Carmen(1984), *Cronología relativa del castellano*, Salamanca: Universidad de Salamanca.
_____(1993), *El orden histórico de los procesos fonológicos*, Salamanca: Universidad de Salamanca.
Väänänen, Veikko(1988), *Introducción al latín vulgar*, Madrid: Gredos.
Varela Ortega, Soledad(2005), *Morfología léxica: la formación de palabras*, Madrid: Gredos.
Wright, R.(1976), "Semicultismo", *Archivum Linguisticum*, VII, pp.13-28.

논문투고일자 : 200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자 : 200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06년 12월 6일

이강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 yuniwan@hufs.ac.kr